

기획 특집 일곱교회

- 에베소 교회
- 서머나 교회
- 버가모 교회
- 두아디라 교회
- 사데 교회
- 빌라델비아 교회
-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 (1)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나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요한계시록 2:8-9)

당회장 이재록 목사

서머나는 소아시아 서쪽 헬메안 만에 있는 도시로, 신약시대에는 로마 식민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큐리오스)라고 불렀으며, 세상에는 오직 한 명의 황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예루살렘 멸망 후 이곳에 이주해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훼방과 핍박을 받았으며, 황제 숭배를 거부해 순교자도 생겼습니다. 서머나에서는 로마 정부와 결탁해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감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도 책망도 아닌 권면의 말씀을 들은 교회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1.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은 주님께서 부활의 처음 되심을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처음’이라 한 것이지요.

그러면 ‘나중’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장차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인류에 대한 모든 구속사업이 끝납니다. 이미 주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과 살아서 주님을 맞게 되는

사람들 모두 주님의 공중강림과 함께 부활의 열매로 나옵니다. 물론 7년 대환난 중에도 이삭줍기 구원이 남아 있지만 주님의 공중 강림과 함께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는 마쳐지며 성령시대도 끝이 납니다. 따라서 이때가 바로 부활의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롬 10:9).

2.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나라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해 겪는 환난과 궁핍을 아시고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환난이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주 안에 들어와서 겪는 환난은 믿음으로 통과할 때 결국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며 하늘나라에도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받는 환난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까닭에 받는 환난은 의를 위한 경우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혹은 학교나 직장 등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로부터 받는 핍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야외회를 가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후 주말마다 교회에 나가니 가족이 서운해하고 핍박할 수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족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

니 자연스럽게 핍박은 사라집니다.

만일 신앙생활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핍박이 계속된다면 지혜롭지 못해 자초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은혜가 충분하다 보니 때로 절제하지 못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언행으로 믿지 않는 가족에게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만 지혜롭고 선하게 행한다면 얼마든지 핍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 외에도 하나님 사람들이 받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와 바울, 베드로, 요한 등 사도들은 하나님을 매우 사랑했고 사랑받았지만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숭한 핍박과 환난을 견뎌냈습니다. 이들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마 5:11~12).

다음으로는, 진리 안에 살지 못해 사단의 송사로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빌 3:20). 이때부터는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 법에 따라 순종해야 하며,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법에 어긋나면 사단이 송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시험 환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 환난을 겪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는 것인양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약 1:13). 사람이 시험 환난을 당하는 까닭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약 1:14) 하나님 법을 어기고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 법을 어기면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 법을 어겼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므로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 해도 죄를 지으면 원수 마귀의 송사로부터 지켜 주실 수 없습니다. 결국 원수 마귀 사단이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지만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사망으로(약 1:15, 롬 6:23) 가는 자녀들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아킬 수 있도록 사단의 송사에 따라 시험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에 대해 히브리서 12:5~6에는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환난이 왔을 때에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면 신속히 돌아켜 주님의 축복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환난을 당할 뿐 아니라 매우 궁핍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물질 축복을 받지만, 서머나 교회와 같이 물질의 궁핍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주님을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데도 직장에서 핍박과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환경 탓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질이 궁핍할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겪는 것이므로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핍박해도 더욱 선으로 대한다면 상대도 그 앞에 고개를 숙이며, 결국에는 넘치는 축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외에 스스로 궁핍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 (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경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난·청년·배울·미리애]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찾아오기교회 새벽예배	9:00 PM (매일, 단, 공휴일은 제외)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2) 851-3845
070-8240-5609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